

8th ICAAP의 변화와 희망의 물결

글 김지영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사업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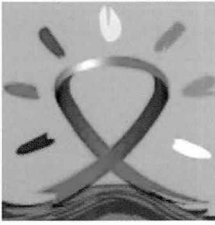
“아유보완?” “아유보완? (스리랑카 언어로 안녕하세요)” 생소한 인사가 우리를 맞이한다. 작렬하는 태양과 높은 습도, 야자나무도 이에 질세라 우리를 일깨운다. 여기가 바로 한국으로부터 14시간 떨어진 스리랑카라고! 14시간의 피곤한 비행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가슴이 뒹다. 웃음이 난다.

올해로 8회째 개최된 국제아시아태평양에이즈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n AIDS in Asia & the Pacific)는 약 50개국 2,000여명이 참여한 국제적 행사였다. “변화의 물결, 희망의 물결(Waves of Change, Waves of Hope)”이라는 주제하에 NGO 활동가와 GO 관계자 및 감염인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였다. 피부색

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서로에 대해 익숙지 않았지만 공동의 관심사와 공동의 미션이 있었기에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모인 것을 감사하며,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부터 ICAAP에서 주로 다루어진 이슈와 국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Issues

- 1) 여성에 대한 폭력 없애기
- 2) 마약사용자에 있어서 마약 중단하기 프로그램 운영과 충분한 주사바늘의 공급
- 3) MSM(남성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CSW(성산업에



로고: 빨간 리본의 주위 색깔의 상징은 전체가 상호 협력한 것을 나누고 다른 하나를 위해 함께 책임지고, 더 많이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채로운 색깔은 다양함을 수용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물결 모양은 역동적인 변화와 움직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시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 인정 및 적절한 예방 프로그램 제공

- 4) VCT(Voluntary Counseling & Testing)의 활성화 및 확대
- 5) HIV/AIDS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높이기
- 6) 빈곤을 줄이고 ART(Anti-Retroviral Therapy)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

위의 다양한 이슈 중에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는 것,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인정 및 적절한 예방프로그램 제공, VCT의 확대, 사회적 수용도 높이기”로 이들 주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곳곳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빈곤을 없애기 위한 플래카드와 포스터가 눈에 띄었고, 캄보디아와 인도에서 온 여성을 위한 NGO에서의 활동이 특히 주목할 만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태지역에서는 MSM(남성동성애자)과 트랜스젠더, CSW(성산업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트랜스젠더가 많은 태국의 경우, 다양한 연구와 에이즈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고는 있었으나 그들의 권리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VCT는 전 세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의 효과와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상담에 있어서 매우 인정받고 있는 사업이었으며, VCT의 확대가 곧 에이즈예방과 감염인 지원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의 VCT는 아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전국적 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많은 투자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HIV/AIDS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3세계 국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과 편견의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즉 3세계 국가에서는 HIV에 대한 치료와 감염인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역시 쉽사리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이 경제력을 가지는 문제는 곧 차별과 편견해소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겠다.

Promises

- 1) HIV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자
- 2) MSM에게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 3) HIV 프로그램을 동료를 활용하여 접근하자
- 4) MSM, 트랜스젠더, CSW의 인권을 보장하자
- 5) GIPA(감염인이 스스로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단계별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향상시키자
- 6) 예방사업에 감염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자
- 7) 감염되지 않은 MSM 그룹 프로그램에 감염된 MSM 그룹을 포함시키자
- 8) 리더쉽, 조사연구, Fund-raising, NGO를 활용하여 성공시키자

Agenda of future

제8회 ICAAP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첫째로는, 국내에서는 비교적 ART(항바이러스치료제)가 잘 제공되

고 있지만 향후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을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약제 내성 때문에 국외로부터 고가의 약을 수입하여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감염인이 있는 만큼 이러한 일이 현실로 되기 전에 약제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남성 동성애자와 마약사용자, 교도소 수감자, 트랜스젠더, 성신입증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의 확대는 훗날 사회적 비용에 투입되는 예산의 절감과 동시에 매우 높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단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부분은 이들이 HIV를 전파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이들이 HIV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피해자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의 존중이며, 인권의 존중은 곧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셋째,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그들을 활용한 서비스 질의 극대화이다. 이것은 일본의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 2006년 "VOICE", 2007년 "CHOICE"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는, 세계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것인데, 국내에도 감염인들 스스로의 활동 단체가 존재하기는 하나 국제적 네트워크망 구축은 아직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NGO와 GO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APN+(Asian Pacific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단체의 구호: 우리는 인간이다. 동물이 아니다



캄보디아 여성 감염인 단체의 자활 공동체를 운영하는 NGO에서 직접 감염인 여성들이 만든 제품들을 팔고 있는 모습



수직 감염된 모녀: 딸이 약을 좋아한다며, 자신이 죽고 싶다고 느껴질 때 딸을 부면 살고 싶음을 느낀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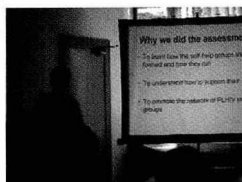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때 국제적 연대도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VCT의 확대이다. VCT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에이즈 예방효과 및 감염인 자원에 효과적이다 라는 전 세계적인 공동인식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에이즈 프로젝트이다. 이에 대한 예산 및 행정지원으로 에이즈예방효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감염인에 대한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위상점점이다. 국제적으로 에이즈 NGO는 나라마다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에 이른다. 3세계 국가에서도 NGO는 특성별로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예산 지원과 함께 감염인 단체와 에이즈 NGO가 활동할 수 있는 기분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 또한(민간단체, 감염인단체) 실패와 시련에 두려워하지 말고,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며,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공동의 목표와 신뢰 아래에 공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구촌이 하나임을 느끼고, 정부, 민간단체, 감염인단체 역시 하나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변화와 희망의 물결이 내 마음 속에 잔잔히 불러왔다.



성 노동은 단지 노동일뿐, 우리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성 노동 에이즈예방단체의 활동가의 모습



네덜의 한 감염인O 직접 자신의 경험과 의문 접근권에 대해 발표하- 모습